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46) - 수입리 고인돌(水入里 支石墓)

청동기 시대의 부족장 무덤으로 알려진 선사유적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33호
·소재지: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13-5
·규모: 보호구역 5.5m x 5m

청동기시대의 部族長(부족장) 무덤으로 알려진 선사유적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13-5에 위치한 수입리 고인돌(水入里 支石墓)

이다. 평지에 세운 卓子形(탁자형)의 소위 북방식 지석묘로서 현재 2枚(매)의 長邊支石(장변지석) 1枚가 남아 있어 蓋石(개석)을 떠받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변지석(短邊支石) 1枚가 남아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없고 석실(石室)은 前後에 痛風이 된 상태이며 지표 부분에는 자갈돌

이 깔려 있을 뿐이다.

石室은 이미 오래 전에 도굴되어 출토유물은 확인 할 수 없다. 개석은 治石(치석)한 板石(판석)처럼 거의 두께가 일정하나 舟形(주형)의 형태를 이루어 세로 면의 크기는 좌우면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각부의 實測值(실측치)는 좌측의 장변지석이 높이 90cm, 길이 2.24m이며 우측의 장변지석은 높이 1.2m, 길이 2.12m이다. 개석은 세로면의 短軸(단축)이 1.55m, 장축이 3m이며, 가로면 중심길이 3.30m, 두께는 30cm이다. 재료는 모두 화강암이다.

교육에세이 19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교훈



조 대 형

남양주교육청 교장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약속의 경험에 있을 것입니다. 친구나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약속을 잘 지켜 유쾌한 기억도 있었지만, 내가 지키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낭패를 당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일화를 통해서 정성을 다하는 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요, 독립 운동가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삶을 살으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로 가장 잘 청소를 하였습시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너무나 성실하게 깨끗이 잘 했는지, 주인이 보고 깜짝 놀라서 당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냐" 나는 평생에 단신처럼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소, 정말 고맙소, 앞으로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한국 사람을 쓰겠소, 했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해놓고 살았습니다. 여관방에서 하루 밤잠을 자도 방안을 깨끗하게 하기로 유명하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다 옥중생활을 하면서도 감방을 깨끗이 하고 화장실을 말끔히 사용하기도 유명합니다.

인간이 갖는 최고의 무기와 최대의 자원은 정성입니다. 정성이 담긴 말과 행동에는 누구나 고개를 숙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도산 선생께서 독립 운동을 할 때, 어느 날 한 동지의 어린 딸이 생일을 맞게 되었는데 그 소녀의 생일날 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지가 급보를 알려왔습니다.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도산 선생을 체포하려고 길거리에 폭 걸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은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천진한 어린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동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소녀의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하시다가 그만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큰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은 정성껏 하라" 그리고 "약속의 크고 작음을 전술하지 말라" 이것이 도산 선생님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의는 삶의 근본이다. 이렇듯 도산 선생은 정성과 약속을 생명과 같이 중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간혹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37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소중한 지표입니다. 상대가 없는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신념이 부족하여 인생을 목표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타인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비참하고 외로운 삶이 될 것이며, 자신이 소중하듯이 남을 소중히 여긴다면 결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사회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회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공중 도덕심이 부족하고 비양심적이며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나보다는 타인을,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소홀히 생각하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주위 사람과 사회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사에 정성을 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참다운 인격자이며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가 될 것이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주시는 교훈을 실천한다면 이는 곧 여러분의 자기 발전은 물론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사랑인가 열정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박 정 근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단연코 사랑이라는 주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수많은 선남선녀들이 사랑의 기쁨보다는 그로 인한 고민과 슬픔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요즘은 한국사회는 더더욱 사랑의 실패로 인한 이혼율이 세계에서 둘째가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물론 뒤집어보면 진정한 사랑을 찾아 재도전하는 남녀가 더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분명 사랑의 혼돈에서 오는 사회적 병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익스피어는 많은 희극에서 사랑의 혼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연인들이 쉽게 사랑에 빠졌다가 그 사랑의 맹약을 지키지 못하고 반복하는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다. "한 여름 밤의 꿈"의 셰익스피어는 헬레나를 사랑하였다가 허미아에게 매달리고 다시 숲의 요정이 벌려준 '사랑의 묘약'의 힘으로 헬레나에 대한

“최소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연인이 되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열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라이벌인 라이선더 역시 아테네의 가부장적 제약으로 위험에 빠진 허미아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숲 속으로 연애도주를 하였지만 요정이 잘못 바뀐 '사랑의 묘약'의 영향으로 헬레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허미아를 버리는 비정함을 보여준다. 사랑의 묘약에 의한 연인들의 태도 변화는 사람들의 사랑의 가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극적 장치일 뿐이다.

세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비극에서조차 사랑의 허무맹랑한 장난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 로미오는 로잘린이란 미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사춘기의 청소년이 흔히 하는 상상병에 걸려서 밤새도록 고민하며 방황한다. 그가 아무리 구애를 해도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로잘린 스스로의 맹세 때문에 번번이 퇴짜를 맞는 상황에 놓여있다.

로미오는 그녀의 무정한 태도에 대해서 "그 여자가 큐피드의 화살에 어디 맞아지지. 그녀는 다이아나(달의 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순결이란 감옥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니, 애를 장난감 같은 사랑의 화살에 어디 상처를 입어야지."

또한 구애의 공세도 피해 버리고, 사랑의 눈초리의 집중 공격에도 차마 안 벌려 줘. 아 굉장한 미인이기는 하지만 죽으면 그녀의 아름다움도 밀천도 함께 사라져 버릴 터이니 야까운 일이지."라고 불평을 한

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금욕적인 삶에 의해서 지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심지어 "저 예쁘고 어질고 착한 여자가 나를 이렇게 절망 속에 몰아넣고서야 어디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 그 여자는 사랑을 양기로 맹세했다는데, 그 맹세로 인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산송장이 되어 있는 셈이네."라고 말하며 그녀를 잊어버리라는 뱀불리오에게 한탄한다.

이 정도면 상상병도 종종 정도는 되리라. 이 때 그는 우울한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친구들에게 이끌려 줄리엣의 아버지 캐플레트가 마련한 가면무도회에 이끌려간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찾아간 원수 집안의 파티장에서 로미오는 로잘린에게 매달리던 상상병에서 갑자기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눈을 뜨게 된다. 로미오는 줄리엣의 아름다움에 끌려 "이 아름다움은 쓰사니 너무나 값지고 속세엔 너무나 아깝구나! 저 여자가 동료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라. 까마귀 때 속세 섞인 백설 같은 비둘기가 저럴 터이지. 그녀가 있던 곳을 잘 봐주었다가 춤이 끝나면 저지분한 이 손으로 만져보자.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내 마음이 여태껏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눈아, 그걸 부정하라! 오늘밤에야 비로소 진짜 미를 보았구나."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의 만남이 운명적이라고 정의하지만 로잘린에 대한 상상병으로 기진맥진해 있던 그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인가. 세익스피어는 사랑의 감정이 즉 끝났을 때 변덕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어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로잘린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연애감정의 대상인 줄리엣이 로잘린과는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로미오는 로잘린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줄리엣의 집 가까이 접근하여 그녀를 생각하며 이층 발코니에서 연모의 정에 잠겨있는 그녀를 정심 없이 바라본다. 현대인들의 눈에는 그의 태도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밖에 보일 수 있겠으나 로미오는 일단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몰입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이 사랑의 진정성이라고 본다면 젊은이들의 혼란 열정과는 다른 면모라고 보아야 할 것일 것이다.

그는 "은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 두개가, 불일이 있어, 저 두 눈에 침여 자기들이 돌아올 때까지 대신 하늘에서 반짝여 달라고 하는구나. 만약에 저 두 눈과 그 두 별이 자리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저 밝은 불은 그 두 별을 햇빛 아래 들불처럼 무색케 할 터이지. 하늘로 간 저 두 눈은 창공에 한껏 빛날 테니. 새들도 밤이 아닐 줄 알고 노래할 거야."

줄리엣 또한 달님을 두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에게 "아, 저 주책없는 달님에 두고 맹세하지 마세요. 천체의 궤도에서 달이 변하는 달이고 보니, 당신 사랑 역시 것처럼 변할까봐 두려우니까요."라고 만류하며 오히려 로미오의 마음을 두고 맹세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줄리엣 또한 사랑의 가변성에 대해서 걱정하며 단순한 열정이 아닌 항구적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이 극의 두 연인들의 사랑의 몰입이나 진정성에 비교해볼 때 요즘은 젊은이들의 사랑의 양태는 너무 가법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 밤 촛사랑도 사랑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꿈땀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사랑을 절대화하는 낭만시대가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연인이 되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열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뉴시용품 포장지류

가 공 제 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 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식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 · 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